

## 주요 노동동향

### ● 생산 및 물가 동향

#### ◆ 2023년 10월 생산은 전월대비 1.6% 감소(전년동월대비 1.0% 증가)

- 전산업 생산은 건설업에서 생산이 늘었으나, 광공업, 서비스업, 공공행정에서 생산이 줄어 전월대비 1.6% 감소함.
  - － 전년동월대비로는 공공행정에서 생산이 줄었으나, 서비스업, 광공업, 건설업에서 생산이 늘어 1.0% 증가함.
- 제조업 생산은 전자부품, 자동차 등에서 늘었으나, 반도체, 기계장비 등에서 줄어 전월대비 3.5% 감소함(전년동월대비 1.2% 증가).
- 서비스업 생산은 정보통신 등에서 늘었으나, 도소매, 금융·보험 등에서 줄어 전월대비 0.9% 감소함(전년동월대비 0.8% 증가).

#### ◆ 2023년 10월 소비는 전월대비 0.8% 감소, 설비투자는 전월대비 3.3% 감소

- 소매판매액지수는 의복 등 준내구재(4.3%), 통신기기 및 컴퓨터 등 내구재(1.0%)에서 판매가 늘었으나, 음식료품 등 비내구재(-3.1%)에서 판매가 줄어 전월대비 0.8% 감소함(전년동월대비 4.4% 감소).
- 설비투자는 특수산업용기계 등 기계류(-4.1%) 및 자동차 등 운송장비(-1.2%)에서 투자가 모두 줄어 전월대비 3.3% 감소함(전년동월대비 9.7% 감소).
- 건설기성(불변)은 전월대비 0.7% 증가, 건설수주(경상)는 전월대비 11.3% 감소함.

〈표 1〉 최근 경제일반 동향

(단위 : %, 전기(월)대비, ( ) 안은 전년동월대비)

		연간			분기				분기				월		
		2020	2021	2022	2021				2022				2022	2023	
					1/4	2/4	3/4	4/4	1/4	2/4	3/4	4/4		10월	9월p
생산	전산업	-1.2	5.3	4.6	1.8	1.0	0.6	2.6	1.6	0.8	0.4	-1.5	3.8	1.0( 2.7)	-1.6( 1.0)
	광공업	-0.3	8.2	1.4	3.3	-1.3	1.7	2.9	3.2	-2.3	-2.4	-6.4	-2.7	1.7( 2.9)	-3.5( 1.1)
	제조업	-0.2	8.4	1.4	3.4	-1.5	1.6	3.1	3.2	-2.2	-2.6	-6.7	-2.8	1.9( 2.9)	-3.5( 1.2)
	건설업	-2.1	-6.7	2.7	-2.9	-3.3	-0.6	2.4	0.5	-0.1	0.8	4.6	5.0	0.2(11.3)	0.7( 4.1)
	서비스업	-2.0	5.0	6.7	1.2	2.2	0.3	2.6	0.8	2.9	1.7	0.1	-0.3	0.5( 2.1)	-0.9( 0.8)
소비	소비재 판매	-0.1	5.8	-0.3	2.9	1.5	1.1	0.5	-0.7	-1.0	0.3	-0.9	1.0	0.1(-2.0)	-0.8(-4.4)
투자	설비투자	5.9	9.6	3.3	6.3	1.4	-1.7	-0.4	0.4	-0.4	8.6	-0.2	0.1	8.7(-5.6)	-3.3(-9.7)
물가		0.5	2.5	5.1	1.3	0.5	0.7	1.0	1.5	2.1	1.1	0.4	-0.1	0.3( 3.8)	-0.6( 3.3)

- 주 : 1) 광공업 생산은 광업(B), 제조업(C), 전기, 가스,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(D)을 포함.
- 2) 서비스업 생산지수는 한국표준산업분류(제10차 개정)상의 13개 대분류(도소매업(G), 운수 및 창고업(H), 숙박 및 음식점업(I), 정보통신업(J), 금융 및 보험업(K), 부동산업(L), 전문·과학 및 기술서비스업(M), 사업시설관리, 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(N), 교육서비스업(P),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(Q), 예술·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(R), 협회 및 단체,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(S), 수도·하수·폐기물 처리, 원료재생업(E))를 포괄함.
- 3) 2022년 이후 전 산업 연간수치는 농림어업을 제외한 수치임.
- 4) 물가상승률 월별 자료는 순서대로 2022년 11월, 2023년 10월, 2023년 11월 기준임.
- 5) p는 잠정치임.
- 6) 생산, 소비, 투자의 분기 및 월 수치는 계절조정계열 전기(월)대비, 연간 수치는 원계열 전년대비임.
- 7) ( ) 안은 원계열 전년동월대비임.

자료 : 통계청, 『산업활동동향』, 『소비자물가동향』, 각호.

### ◆ 2023년 11월 소비자물가지수는 전월대비 0.6% 하락(생활물가지수 전월대비 0.9% 하락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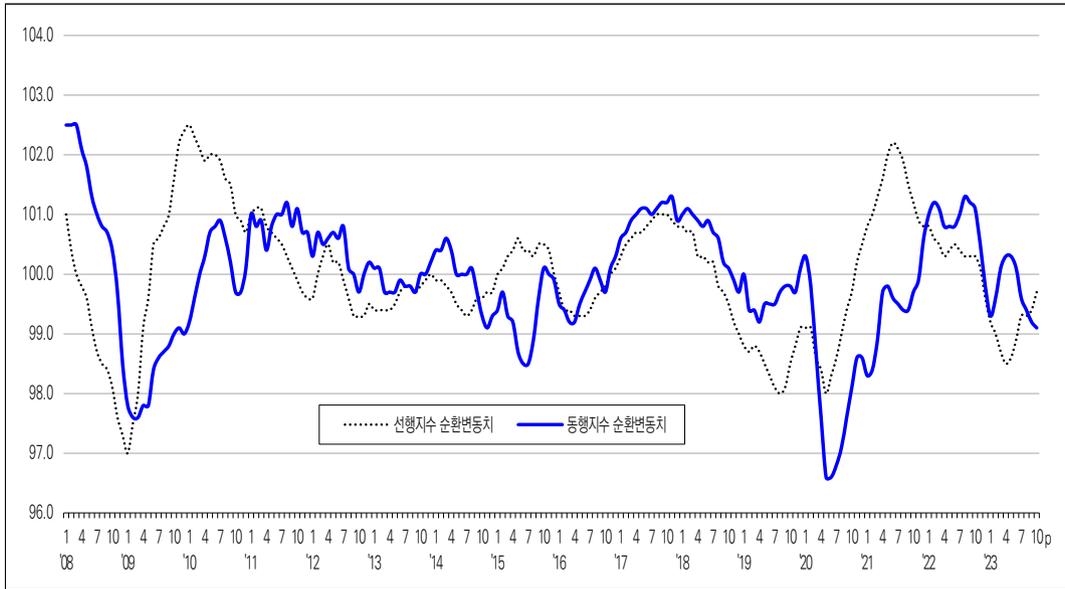
○ 2023년 11월 소비자물가지수는 112.74(2020=100)로 전월대비 0.6% 하락함(전년동월대비 3.3% 상승).

- 소비자물가지수의 지출목적별 동향을 보면, 전월대비 의류·신발(1.0%), 음식·숙박(0.2%), 주류·담배(1.3%), 보건(0.2%), 기타 상품·서비스(0.1%)는 상승, 통신, 교육은 변동 없으며, 오락·문화(-0.2%), 주택·수도·전기·연료(-0.1%), 가정용품·가사서비스(-0.3%), 교통(-1.8%), 식료품·비주류음료(-2.6%)는 하락함.
- 생활물가지수는 식품은 전월대비 1.4% 하락, 식품 이외는 전월대비 0.5% 하락하여 전월대비 0.9% 하락함.

◆ 2023년 10월 동행종합지수는 전월대비 0.1% 증가, 선행종합지수는 전월대비 0.4% 증가

- 현재의 경기상황을 보여주는 동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는 전월대비 0.1p 하락함.
- 향후 경기국면을 예고해 주는 선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는 전월대비 0.3p 상승함.

[그림 1] 경기선행지수 순환변동치 · 경기동행지수 순환변동치 추이



주 : 1) p는 잠정치임.  
 2) 경기선행지수 및 경기동행지수는 2020년=1000이 기준.  
 자료 : 통계청, 『경기종합지수』, KOSIS.

(이기쁨, 동향분석실 책임연구원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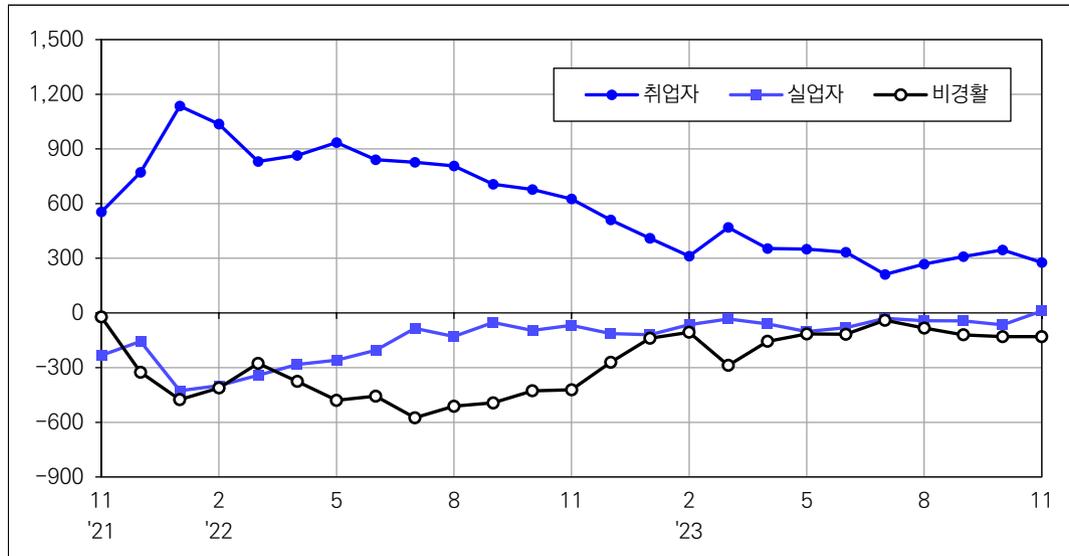
고용 동향

◆ 전년동월대비 취업자 수 증가폭 둔화, 전월대비 취업자 수 감소로 전환

○ 2023년 11월 취업자 수는 전년동월대비 27만 7천 명 증가하여 증가폭이 둔화됨(전월대비<sup>1)</sup> 7만 9천 명 감소)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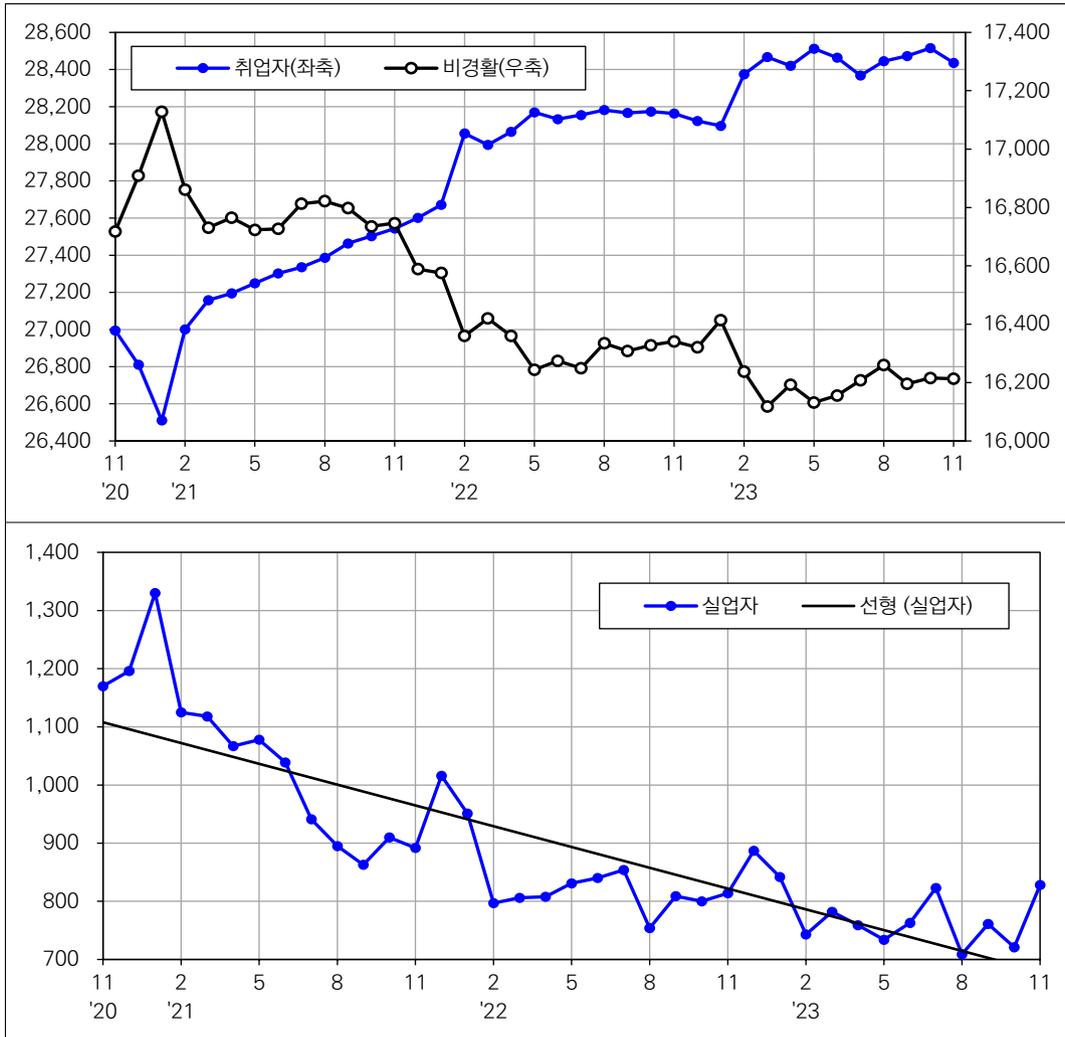
- (산업별) 11월 제조업은 기저 영향으로 취업자 감소폭이 축소되었음. 서비스업은 숙박 및 음식점업에서 취업자 증가폭이 둔화되었고, 교육 및 서비스업 취업자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음. 반면에 전문과학기술업은 견조한 취업자 증가세를 유지함.
- (연령별) 전월대비 30대와 50대에서 취업자가 감소함.
- (종사상 지위별) 전월대비 임시직 취업자가 감소함.
- (실업자) 11월 실업자는 전년동월대비 1만 1천 명 증가. 10월까지 유지되던 실업자 감소세가 증가로 전환함(10월 -6만 6천 명).
- (비경제활동인구) 11월 비경제활동인구는 전년동월대비 13만 명 감소하여 전월과 동일하게 유지됨(10월 -13만 명).

[그림 1] 원계열 취업자, 실업자, 비경활 증감 현황(상) 및 계절조정 취업자, 비경제활동인구(중), 실업자(하) 변화  
(단위 : 천 명, 전년동월대비)



1) 본고에서 전월대비 수치는 통계청 계절조정계열 자료를 활용함.

[그림 1]의 계속



자료 : 통계청, 「경제활동인구조사」.

○ 2023년 11월은 전월대비 30대와 50대에서 취업자가 감소함.

- 전년동월대비 30대 초반 여성에서는 취업자가 증가했으며, 도소매와 숙박음식, 공공행정업에서 늘어난 취업이 주효함. 반면에 30대 남성은 제조업, 운수창고업, 도소매업에서 취업자가 감소하였음.
- 전년동월대비 50대는 상반기에 비해 여성 취업자 증가폭이 둔화되었음. 50대 여성은 도소매와 보건복지업에서 여전히 취업자가 증가 중이나, 숙박음식업과 교육서비스업에서는 취업자는 감소하였음.

〈표 1〉 연령별 취업자 동향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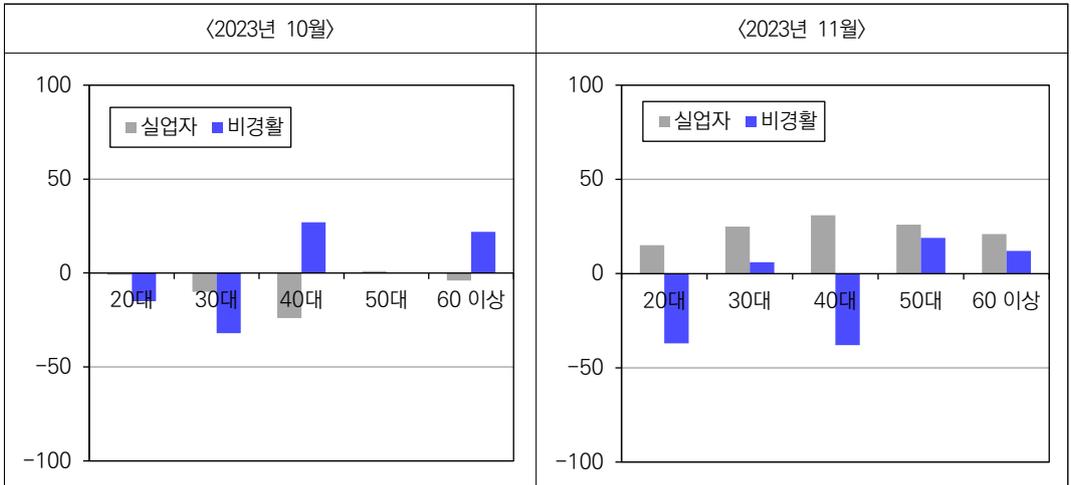
(단위 : 천 명, %, 전년동월대비, ( ) 안은 계절조정계열 전월대비)

	15~19세				20대				30대			
	9월	10월	11월	(전월비)	9월	10월	11월	(전월비)	9월	10월	11월	(전월비)
취업자	-3	-6	-23	(-17)	-86	-76	-44	( 32)	56	110	80	(-30)
실업자	1	7	2	( -5)	-45	-33	-26	( 7)	-11	-21	7	( 28)
비경활	20	15	34	( 19)	-61	-82	-116	(-34)	-104	-141	-133	( 8)
실업률	0.4	4.5	2.1	(-2.4)	-0.9	-0.7	-0.6	(0.1)	-0.2	-0.4	0.0	(0.4)
고용률	-0.2	-0.4	-1.0	(-0.6)	0.5	0.6	1.1	(0.5)	1.5	2.3	1.7	(-0.6)
	40대				50대				60세 이상			
	9월	10월	11월	(전월비)	9월	10월	11월	(전월비)	9월	10월	11월	(전월비)
취업자	-58	-68	-62	( 6)	45	52	36	(-16)	354	336	291	(-45)
실업자	-2	-24	0	( 24)	0	-3	18	( 21)	15	9	11	( 2)
비경활	-72	-42	-78	(-36)	-30	-25	-22	( 3)	128	146	186	( 40)
실업률	-0.1	-0.3	0.0	(0.3)	0.0	-0.1	0.3	(0.4)	0.2	0.0	0.1	(0.1)
고용률	0.6	0.5	0.6	(0.1)	0.4	0.3	0.2	(-0.1)	0.9	0.8	0.5	(-0.3)

자료 : 통계청, 「경제활동인구조사」.

〈그림 2〉 연령별 실업자, 비경제활동인구 증감 : 계절조정계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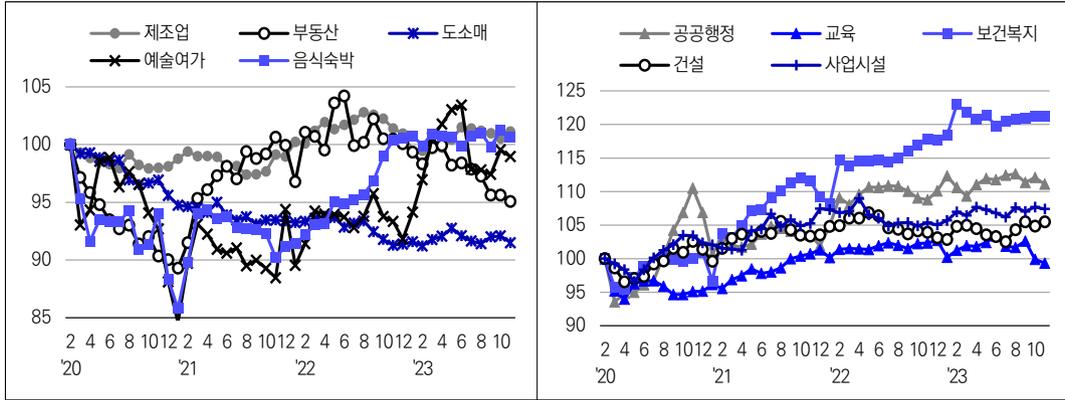
(단위 : 천 명, 전월대비)



자료 : 통계청, 「경제활동인구조사」.

○ (전월대비) 산업별로는 제조업, 건설업에서 취업자가 증가로 전환하였으며, 도소매업, 운수창고업, 숙박음식점업, 정보통신업 등에서 취업자가 감소로 전환함.

[그림 3] 산업별 취업자 수 변화: 계절조정계열, 2020년 2월을 100으로 정규화



자료 : 통계청, 「경제활동인구조사」.

[표 2] 산업별 취업자 수 증감

(단위 : 천명, %)

	전년동월대비(원계열)			전월대비(계절조정계열)			3개월 전 대비 (계절조정계열)	
	9월	10월	11월	9월	10월	11월	증감	증감률
농림어업	-3	16	-2	8	5	-3	10	0.7
광업	1	2	1	1	-1	0	0	0.0
제조업	-72	-77	-11	-10	-20	27	-3	-0.1
전기·가스·증기	11	11	8	5	-2	-4	-1	-1.1
수도·원료재생	4	-8	1	-2	-8	6	-4	-2.7
건설업	36	14	32	24	-13	13	24	1.1
도매 및 소매업	-17	11	7	21	3	-21	3	0.1
운수 및 창고업	2	29	36	0	19	-8	11	0.7
숙박 및 음식점업	66	52	7	-28	34	-14	-8	-0.3
정보통신업	47	75	54	5	25	-16	14	1.4
금융 및 보험업	11	11	10	-1	6	-8	-3	-0.4
부동산업	-36	-26	-30	-9	0	-3	-12	-2.3
전문·과학·기술	67	76	89	7	10	24	41	3.0
사업시설관리지원	22	38	28	-8	9	-4	-3	-0.2
공공행정·사회보장	15	35	26	-14	8	-11	-17	-1.4
교육서비스업	20	-44	-57	18	-51	-11	-44	-2.3
보건 및 사회복지	118	104	85	3	9	1	13	0.5
예술·스포츠·여가	9	30	30	-2	11	-3	6	1.2
협회·단체·수리·기타	15	8	-16	-5	-2	-6	-13	-1.1
가구 내 고용·자가소비	-8	-10	-17	5	-5	-7	-7	-9.9

자료 : 통계청, 「경제활동인구조사」.

○ 종사상 지위별로 살펴보면, 2023년 11월은 전년동월대비 상용직과 임시직의 취업자 수 증가세가 둔화되었으며, 일용직은 감소폭이 줄어들음.

- 상용직은 전년동월대비 운수창고, 전문과학기술, 예술·스포츠업에서 증가하였으나, 금융보험과 부동산업에서는 감소하였음. 임시직은 건설업과 보건복지업에서 증가하였으며, 도소매, 사업관리지원, 교육서비스업에서는 감소세가 확대됨. 일용직은 전문과학기술에서 감소로 전환함.

〈표 3〉 종사상 지위별 취업자 수 증감

(단위: 천명, %)

	전년동월대비(원계열)			전월대비(계절조정계열)		
	9월	10월	11월	9월	10월	11월
상용직	435	440	419	41	18	-4
임시직	-31	68	25	-20	71	-51
일용직	-67	-110	-107	34	-43	3
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(고용주)	39	66	81	6	23	5
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(자영자)	-20	-67	-78	-59	-22	24
무급가족종사자	-48	-51	81	1	-2	0

자료: 통계청, 「경제활동인구조사」.

〈표 4〉 종사상 지위별, 산업별 취업자 수 증감

(단위: 천명, 전년동월대비)

	상용직			임시직			일용직			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			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		
	9월	10월	11월	9월	10월	11월	9월	10월	11월	9월	10월	11월	9월	10월	11월
농림어업	4	5	4	-7	0	-2	2	-4	-14	2	16	16	5	6	4
제조업	-87	-92	-39	1	3	5	-10	0	8	19	15	19	10	8	2
건설업	73	59	36	-4	14	31	-46	-76	-64	3	4	12	11	11	12
도소매	68	76	74	-66	-47	-53	9	3	-4	-16	7	8	-11	-31	-19
운수창고	22	25	42	-3	10	7	-12	-4	-10	8	10	6	-11	-10	-8
음식숙박	51	38	15	23	58	52	-11	-20	-9	17	11	10	-6	-14	-25
정보통신	4	30	10	-2	31	21	3	1	5	3	2	3	15	13	17
금융보험	3	-1	-9	-13	8	14	-2	-1	-4	2	-1	1	11	6	7
부동산	-5	5	-2	0	-9	-19	0	0	-1	-1	-1	7	-17	-22	-16
전문과학기술	65	72	98	-5	2	-1	0	0	-3	14	14	12	-15	-14	-19
사업관리지원	26	50	39	12	-7	-17	9	8	12	-1	0	-2	-1	-5	2
공공행정	2	20	11	-11	13	14	0	1	0	-	-	-	-	-	-
교육서비스	36	14	26	14	-37	-57	-5	-4	-2	1	3	0	4	-17	-20
보건복지	112	92	69	10	23	27	-1	-2	-1	-12	-14	-16	6	5	5
예술스포츠	9	9	15	10	23	18	5	3	0	4	4	4	-19	-7	-8
협회단체	21	16	10	10	7	4	-5	-11	-16	-5	-5	0	-4	1	-11
가구 내 고용	-	2	2	-14	-16	-15	0	-1	-4	-	-	-	3	6	1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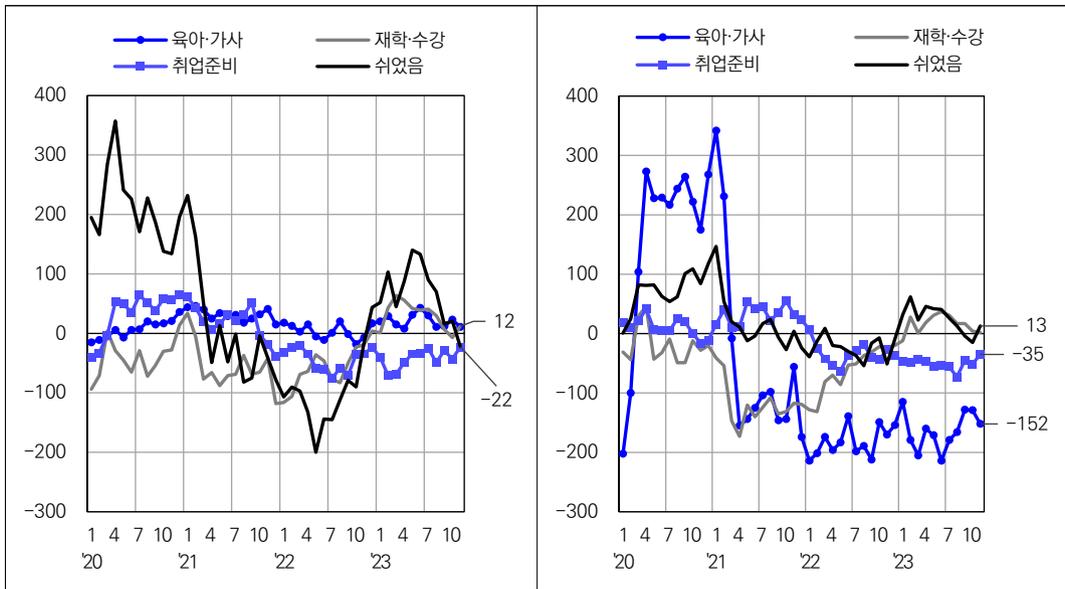
자료: 통계청, 「경제활동인구조사」.

○ 11월 비경제활동인구는 전년동월대비 -13만 명으로 전월과 감소폭이 동일함.

- 남성은 전년동월대비 +5만 9천 명으로 '쉬었음'(-2만 2천 명)에서 감소로 전환하였고, '통학'(+1만 2천 명)에서 증가로 전환함. 여성은 -18만 9천 명으로 '육아·가사'(-15만 2천 명)에서 감소폭이 확대되었으며, '쉬었음'(1만 3천 명) 사유에서 증가세로 전환함.

[그림 4] 성별(남자 : 좌, 여자 : 우) 비경제활동인구 사유별 증감

(단위 : 천 명, 전년동월대비)



자료 : 통계청, 「경제활동인구조사」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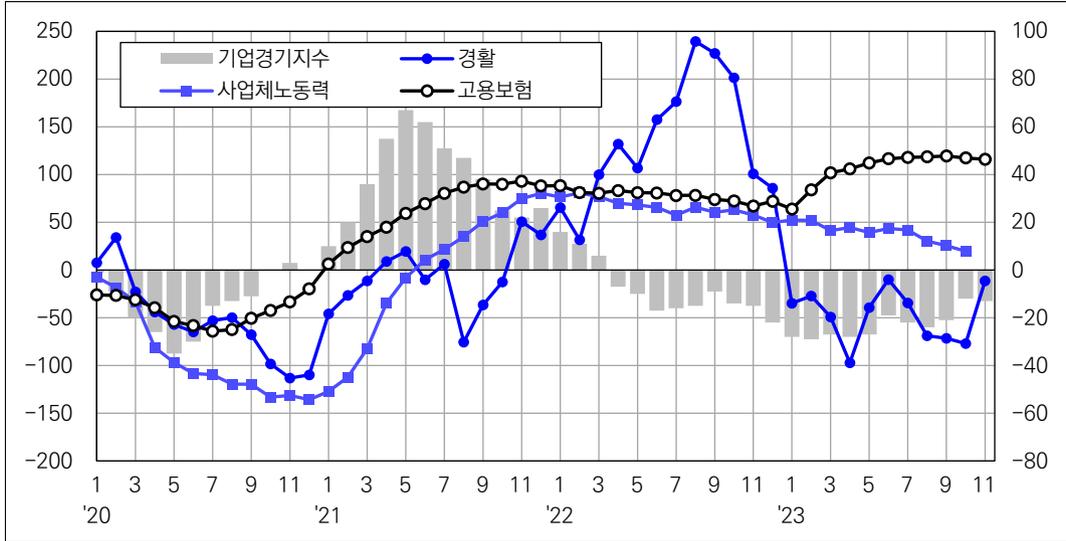
◆ 제조업 취업자 수 감소폭 축소, 서비스업 취업자 수 증가폭 둔화

○ 2023년 11월 전년동월대비 제조업 취업자는 1만 1천 명 감소하여 전년도의 기저 영향 작용으로 인해 하반기 이후 가장 적은 취업자 감소폭을 기록하였음(10월 -7만 7천 명).

- 최근 고용보험 피보험자는 고용허가제 외국인을 제외하면 전년동월대비 3천 명 감소하여 3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으며, 사업체 종사자도 증가세 둔화가 지속되고 있음.
- 계절조정계열 취업자는 전월대비 2만 7천 명 증가하여 증가로 전환함.

[그림 5] 제조업 고용 증감(좌) 및 기업경기지수(우) 증감

(단위 : 천 명, p, 전년동월대비)



자료 : 통계청, 「경제활동인구조사」; 고용노동부, 「사업체노동력조사」; 한국고용정보원, 「고용행정통계」; 한국은행, 「기업경기조사」.

[그림 6] 계절조정 제조업 취업자 수

(단위 : 천 명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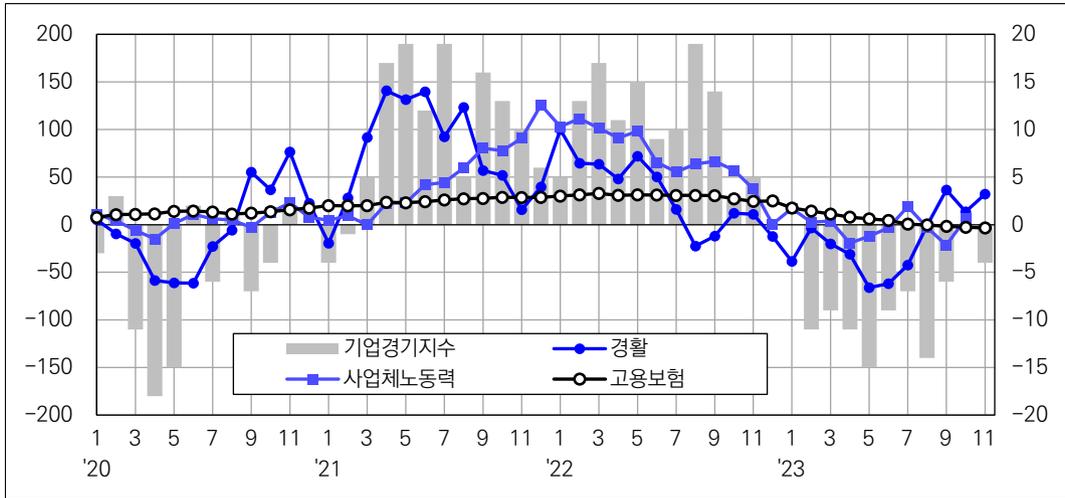


자료 : 통계청, 「경제활동인구조사」.

- 2023년 11월 건설업 취업자는 전년동월대비 3만 2천 명 증가하여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음.
- 사업체노동력조사 종사자는 증가로 전환하였으며 고용보험 피보험자는 감소하고 있음.

[그림 7] 건설업 고용 증감(좌) 및 기업경기지수(우) 증감

(단위 : 천 명, p, 전년동월대비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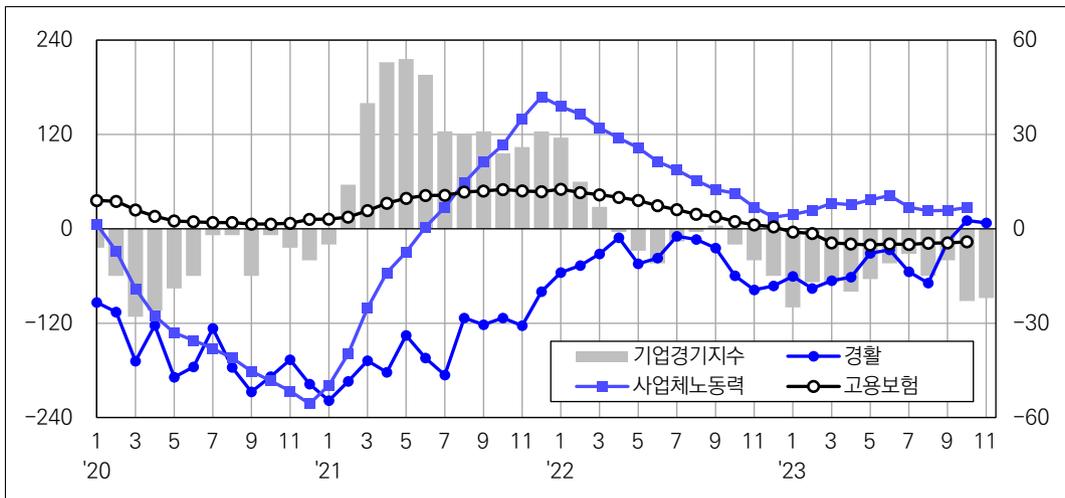
자료 : 통계청, 「경제활동인구조사」; 고용노동부, 「사업체노동력조사」; 한국고용정보원, 「고용행정통계」; 한국은행, 「기업경기조사」.

○ 2023년 11월 서비스업은 전년동월대비 25만 명 증가하여 증가폭이 둔화됨(10월 +38만 명).

- (도소매) 경찰 취업자 증가폭이 둔화되었으며, 기업경기지수는 감소폭이 소폭 줄어들음.
- (숙박음식) 경찰 취업자 감소세를 유지하고 생산지수는 소폭 감소함.
- (전문과학) 경찰 취업자 증가폭이 확대되었음.

[그림 8] 도매 및 소매업 고용 증감(좌) 및 기업경기지수(우) 증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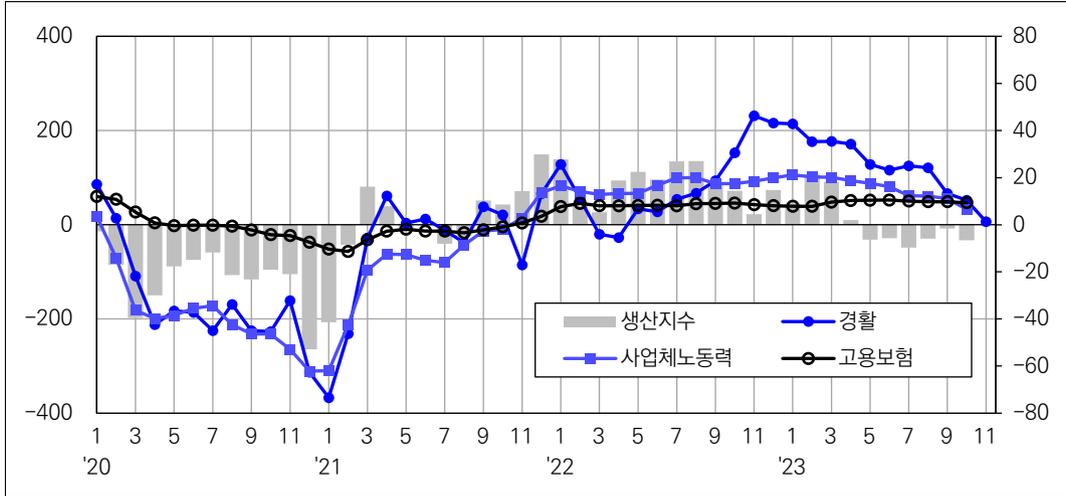
(단위 : 천 명, p, 전년동월대비)



자료 : 통계청, 「경제활동인구조사」; 고용노동부, 「사업체노동력조사」; 한국고용정보원, 「고용행정통계」; 한국은행, 「기업경기조사」.

[그림 9] 숙박 및 음식점업 고용 증감(좌) 및 생산지수(우) 증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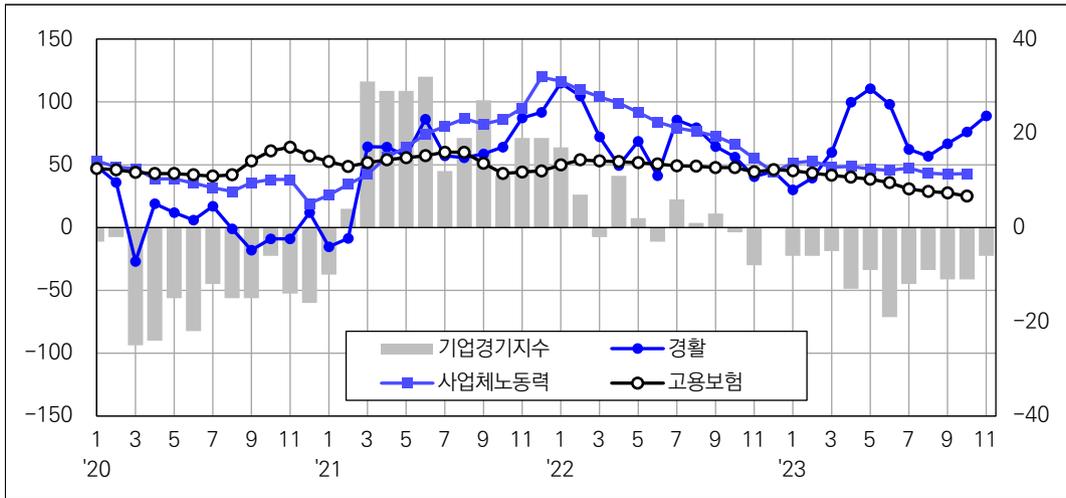
(단위 : 천 명, p, 전년동월대비)



자료 : 통계청, 「경제활동인구조사」, 「서비스업동향조사」; 고용노동부, 「사업체노동력조사」; 한국고용정보원, 「고용행정통계」.

[그림 10] 전문,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고용 증감(좌) 및 기업경기지수(우) 증감

(단위 : 천 명, p, 전년동월대비)



자료 : 통계청, 「경제활동인구조사」; 고용노동부, 「사업체노동력조사」; 한국고용정보원, 「고용행정통계」; 한국은행, 「기업경기조사」.

(황지영, 동향분석실 연구원)

## ● 임금 및 근로시간 동향

### ◆ 2023년 9월 명목임금은 전년동월대비 5.7% 증가

- 2023년 9월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임금총액은 431만 6천 원(5.7%)임.
  - 2023년 9월 상용근로자 임금총액은 459만 원으로 전년동월대비 5.8% 증가, 임시일용근로자 임금총액은 188만 9천 원으로 전년동월대비 7.4% 증가함.
  - 상용근로자의 임금이 크게 증가한 것은 명절상여금 지급시기가 변경된 것과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등 연관 산업에서 임금협상 타결금 지급 등으로 특별급여(제조업 11.9%,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96.0%)가 증가한 영향이며, 임시일용근로자의 임금 증가는 제조업 등에서 명절상여금, 임금협상 타결금 지급, 건설업에서 임금이 인상된 데 기인함.
  - ※ 초과급여: 연장(야근근로 포함) 및 휴일근로에 대한 수당으로 지급되는 급여  
특별급여: 상여금, 성과급, 임금인상소급분, 학자금 등 정기 또는 비정기적으로 지급되는 특별한 급여
- 2023년 9월 소비자물가지수(2020=100.0)를 고려한 실질임금은 전년동월대비 1.9% 증가함.
  - 2023년 1~9월 평균 실질임금은 전년동평균대비 1.2% 감소함.

### ◆ 2023년 9월 협약임금인상률(4.7%, 임금총액 기준)은 전년동월대비 0.6%p 하락

- 민간부문의 협약임금인상률은 4.7%로 전년동월대비 0.6%p 하락, 공공부문은 2.0%로 전년동월대비 0.9%p 상승함.
  - ※ 협약임금인상률은 상용근로자 100인 이상 전사업체(농업, 수렵업, 임업, 어업, 국가 또는 지방행정기관, 국·공립 초·중·고 교육기관은 제외)를 대상으로 근로자와 사용자 간 교섭에 따라 정한 임금인상률로서 초과급여, 특별급여 등 변동성 급여를 제외한 임금인상률임.

〈표 1〉 임금 동향(상용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의 전체 근로자 기준)

(단위 : 천 원, %, 2020=100.0)

	2019	2020	2021	2022	2022		2023	
					1~9월	9월	1~9월	9월
전체 근로자 임금총액	3,490 ( 3.4)	3,527 ( 1.1)	3,689 ( 4.6)	3,869 ( 4.9)	3,865 ( 5.2)	4,085 ( 3.1)	3,961 ( 2.5)	4,316 ( 5.7)
상용 근로자	임금총액	3,702 ( 3.1)	3,719 ( 0.4)	3,893 ( 4.7)	4,095 ( 5.2)	4,089 ( 5.5)	4,337 ( 3.3)	4,590 ( 5.8)
	정액급여	3,010 ( 4.1)	3,077 ( 2.2)	3,181 ( 3.4)	3,319 ( 4.3)	3,297 ( 4.3)	3,313 ( 4.5)	3,425 ( 3.9)
	초과급여	202 ( 2.7)	200 (-0.9)	208 ( 3.7)	220 ( 5.7)	217 ( 6.0)	221 ( 6.9)	223 ( 2.6)
	특별급여	490 (-2.8)	441 (-9.9)	504 (14.3)	556 (10.4)	575 (12.8)	803 (-1.9)	559 (-2.8)
임시일용근로자 임금총액	1,517 ( 6.2)	1,636 ( 7.8)	1,700 ( 3.9)	1,747 ( 2.8)	1,738 ( 2.8)	1,758 ( 2.8)	1,757 ( 1.1)	1,889 ( 7.4)
소비자물가지수	105.1 ( 0.4)	105.7 ( 0.5)	104.0 ( 2.5)	109.3 ( 5.1)	107.2 ( 5.0)	108.9 ( 5.6)	111.2 ( 3.7)	113.0 ( 3.7)
실질임금증가율	3.0	0.5	2.0	-0.2	0.1	-2.3	-1.2	1.9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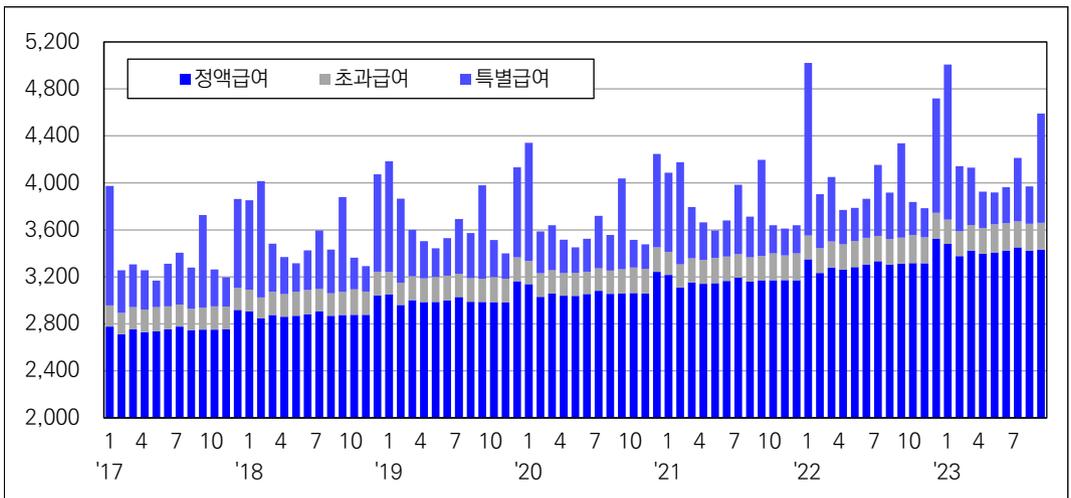
주 : 1) 임금근로자 명목임금임.

2) ( ) 안은 전년대비, 전년동평균대비, 전년동월대비 상승률임.

자료 : 고용노동부, 「사업체노동력조사」, 통계청, <https://kosis.kr/>

〈그림 1〉 상용근로자의 임금 구성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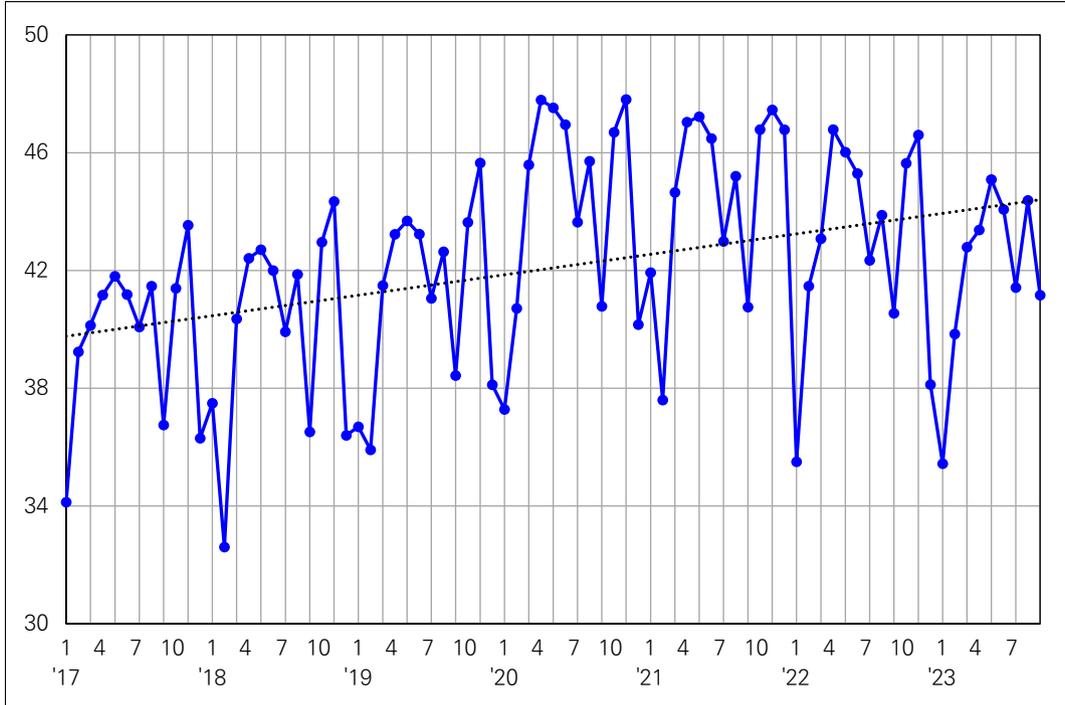
(단위 : 천 원)



자료 : 고용노동부, 「사업체노동력조사」.

[그림 2] 임시·일용근로자의 상대임금 비율

(단위 : %, 상용근로자 임금=100)



자료 : 고용노동부, 「사업체노동력조사」.

◆ 2023년 9월 중소기업·대규모 사업체 모두 임금상승폭 확대

○ 2023년 9월 중소기업(상용근로자 1~299인) 사업체의 임금은 379만 3천 원으로 전년동월대비 4.3% 상승, 대규모(상용근로자 300인 이상) 사업체 임금은 686만 9천 원으로 전년동월대비 8.3% 상승함.<sup>2)</sup>

- 중소기업에 비해 대규모 사업체의 임금증가폭이 컸던 이유는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등 연관 산업에서 임금 협상 타결금 지급 등으로 특별급여가 증가한 영향임. 중소기업·대규모 사업체의 특별급여는 각각 전년동월대비 13.2%, 17.0% 상승함.
- 중소기업·대규모 사업체의 임시일용근로자 임금은 각각 전년동월대비 3.8%, 39.5% 상승함. 대규모 사업체 임시일용근로자의 임금상승폭 확대는 제조업 부문에서 전년동월대비 100.5% 상승한 영향이 큼.

2) 「사업체노동력조사」에서는 사업체의 상용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사업체 규모를 구분하고 있으며, 중소기업은 상용근로자 수가 1~299인, 대규모 사업체는 상용근로자 수가 300인 이상 규모를 의미함.

〈표 2〉 사업체 규모별 임금 동향(상용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의 전체 근로자 기준)

(단위 : 천 원, %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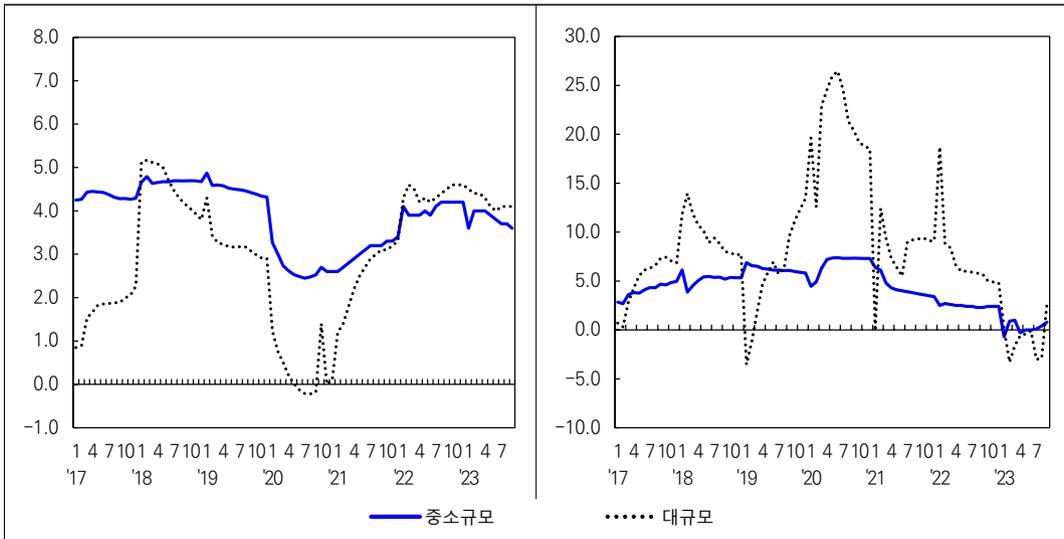
		2021	2022	2022		2023	
				1~9월	9월	1~9월	9월
중소 규모	소 계	3,316 ( 3.8)	3,462 ( 4.4)	3,446 ( 4.4)	3,637 ( 2.3)	3,521 ( 2.2)	3,793 ( 4.3)
	상용임금총액	3,510 ( 3.9)	3,675 ( 4.7)	3,656 ( 4.7)	3,876 ( 2.5)	3,752 ( 2.6)	4,055 ( 4.6)
	정액급여	3,012 ( 3.4)	3,139 ( 4.2)	3,121 ( 4.2)	3,137 ( 4.3)	3,234 ( 3.6)	3,239 ( 3.3)
	초과급여	176 ( 2.9)	186 ( 5.7)	184 ( 6.0)	186 ( 6.7)	184 ( 0.2)	189 ( 1.6)
	특별급여	322 (10.4)	350 ( 8.7)	351 ( 8.4)	553 (-7.8)	334 (-4.9)	627 (13.2)
	임시일용임금총액	1,671 ( 3.4)	1,711 ( 2.4)	1,701 ( 2.3)	1,706 ( 2.4)	1,715 ( 0.8)	1,772 ( 3.8)
대규모	소 계	5,582 ( 6.5)	5,922 ( 6.1)	5,981 ( 7.4)	6,342 ( 5.5)	6,119 ( 2.3)	6,869 ( 8.3)
	상용임금총액	5,687 ( 6.6)	6,049 ( 6.4)	6,107 ( 7.7)	6,483 ( 5.7)	6,259 ( 2.5)	7,003 ( 8.0)
	정액급여	3,973 ( 3.3)	4,155 ( 4.6)	4,115 ( 4.5)	4,135 ( 5.1)	4,286 ( 4.1)	4,307 ( 4.2)
	초과급여	357 ( 5.1)	377 ( 5.5)	373 ( 5.9)	385 ( 7.0)	398 ( 6.6)	400 ( 3.9)
	특별급여	1,357 (18.1)	1,516 (11.8)	1,618 (17.3)	1,963 ( 6.9)	1,575 (-2.7)	2,296 (17.0)
	임시일용임금총액	2,214 ( 9.1)	2,321 ( 4.8)	2,344 ( 5.7)	2,565 ( 5.4)	2,408 ( 2.7)	3,577 (39.5)

주 : 1) 임금근로자 명목임금임.

2) ( ) 안은 전년대비, 전년동평균대비, 전년동월대비 상승률임.

자료 : 고용노동부, 「사업체노동력조사」.

〈그림 3〉 사업체 규모별 상용근로자 정액급여 증가율(좌, 누계)과 임시일용근로자 임금총액 증가율(우, 누계) 추이 (단위 : %)



주 : 1인 기준 상용근로자의 정액급여와 임시일용근로자 임금총액의 월별 누계값 기준임.

자료 : 고용노동부, 「사업체노동력조사」.

◆ 2023년 9월 산업별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임금은 전기, 가스,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을 제외한 모든 산업에서 전년동월대비 증가

- 2023년 9월 임금이 전년동월대비 크게 증가한 산업은 전문,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(13.8%)과 수도, 하수 및 폐기물 처리, 원료재생업(12.1%)으로 나타남.
  - 위 두 산업에서 임금이 10% 이상 증가한 것은 상용근로자의 특별급여가 전년동월대비 각각 59.8%, 64.3% 상승한 영향이 큼.
  - 반면 전기, 가스,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의 임금은 전년동월대비 10.8% 감소함. 전기, 가스,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부문 상용근로자의 임금은 전년동월대비 11.3% 감소, 특히 특별급여는 전년동월대비 23.0% 감소함.
- 2023년 9월 임금총액이 가장 많은 산업은 전기, 가스,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(957만 원)이고, 임금총액이 가장 낮은 산업은 숙박 및 음식점업(220만 2천 원)으로 나타남.

〈표 3〉 산업별 임금 동향(상용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의 전체 근로자 기준, 제10차 표준산업분류)

(단위 : 천 원, %)

	2021	2022	2022		2023	
			1~9월	9월	1~9월	9월
전 산업	3,689 ( 4.6)	3,869 ( 4.9)	3,865 ( 5.2)	4,085 ( 3.1)	3,961 ( 2.5)	4,316 ( 5.7)
광업	4,415 ( 2.1)	4,608 ( 4.4)	4,621 ( 4.0)	4,911 ( 1.6)	4,671 ( 1.1)	5,328 ( 8.5)
제조업	4,239 ( 6.2)	4,484 ( 5.8)	4,487 ( 6.7)	4,777 ( 4.3)	4,629 ( 3.2)	5,079 ( 6.3)
전기·가스·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	6,753 ( 0.3)	6,907 ( 2.3)	6,957 ( 1.8)	10,726 (-0.8)	7,426 ( 6.7)	9,570 (-10.8)
수도·하수·폐기물처리 및 원료재생업	4,094 ( 5.3)	4,168 ( 1.8)	4,084 ( 1.9)	4,481 (-3.0)	4,248 ( 4.0)	5,023 ( 12.1)
건설업	3,106 ( 2.4)	3,229 ( 4.0)	3,221 ( 4.1)	3,379 ( 2.8)	3,349 ( 4.0)	3,556 ( 5.2)
도매 및 소매업	3,551 ( 3.7)	3,773 ( 6.3)	3,735 ( 5.8)	3,954 ( 6.1)	3,906 ( 4.6)	4,251 ( 7.5)
운수 및 창고업	3,795 ( 7.5)	4,040 ( 6.5)	3,962 ( 6.1)	4,264 ( 5.3)	4,160 ( 5.0)	4,502 ( 5.6)
숙박 및 음식점업	1,905 ( 1.4)	2,004 ( 5.2)	1,999 ( 5.7)	2,080 ( 5.8)	2,090 ( 4.5)	2,202 ( 5.8)
정보통신업	4,796 ( 4.0)	4,999 ( 4.2)	4,999 ( 3.8)	5,040 ( 2.3)	5,100 ( 2.0)	5,129 ( 1.8)
금융 및 보험업	6,963 ( 6.7)	7,324 ( 5.2)	7,380 ( 5.0)	7,520 (-1.4)	7,367 (-0.2)	7,637 ( 1.6)
부동산업	2,954 ( 3.7)	3,086 ( 4.5)	3,091 ( 5.1)	3,089 ( 0.0)	3,123 ( 1.1)	3,293 ( 6.6)
전문·과학 및 기술서비스업	5,106 ( 4.8)	5,376 ( 5.3)	5,358 ( 6.0)	5,619 ( 5.3)	5,443 ( 1.6)	6,395 ( 13.8)
사업시설관리 및 임대서비스업	2,492 ( 3.4)	2,584 ( 3.7)	2,571 ( 3.6)	2,664 ( 1.0)	2,670 ( 3.8)	2,818 ( 5.8)
교육서비스업	3,355 (-0.3)	3,435 ( 2.4)	3,492 ( 2.1)	3,759 ( 0.8)	3,567 ( 2.1)	3,877 ( 3.2)
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업	3,014 ( 2.5)	3,122 ( 3.6)	3,126 ( 3.8)	3,318 ( 0.8)	3,130 ( 0.1)	3,406 ( 2.7)
여가 관련 서비스업	2,994 ( 4.2)	3,077 ( 2.8)	3,063 ( 2.5)	3,228 ( 0.6)	3,060 (-0.1)	3,274 ( 1.4)
협회·단체 및 기타개인서비스업	2,700 ( 5.4)	2,832 ( 4.9)	2,834 ( 4.8)	3,087 ( 4.7)	2,991 ( 5.6)	3,363 ( 8.9)

주 : 1) 임금근로자 명목임금임.

2) 2020년 1월부터 제10차 표준산업분류를 반영하여 산업별 임금총액을 공표함에 따라, 2020년 이전 자료와의 산업별 비교에 유의해야 함.

3) ( ) 안은 전년대비, 전년동평균대비, 전년동월대비 상승률임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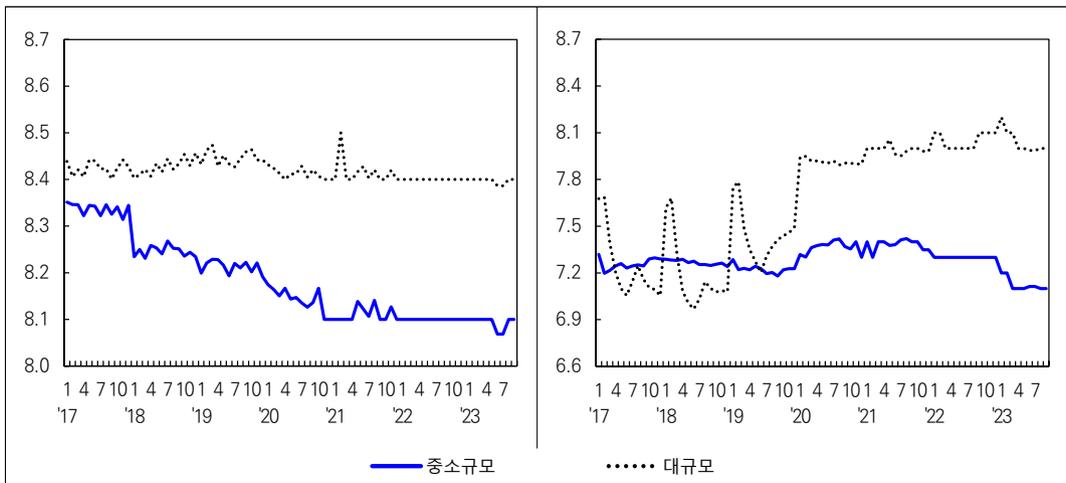
자료 : 고용노동부, 「사업체노동력조사」.

◆ 2023년 9월 상용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의 전체근로자 월평균 근로시간은 148.0시간으로 전년동월대비 6.4시간 감소(월력상 근로일수는 전년동월대비 1일 감소)

- 2023년 9월 상용근로자의 월평균 근로시간은 154.9시간으로 전년동월대비 5.9시간 감소, 임시일용근로자의 근로시간은 87.2시간으로 전년동월대비 8.3시간 감소함.
  - － 상용근로자의 근로시간은 월력상 근로일수 증감에 영향을 크게 받는 편이며, 월력상 근로일수 1일 감소 영향으로 근로시간이 감소함.
  - － 임시일용근로자의 근로시간 감소는 임시일용근로자의 근로시간이 상대적으로 짧은 숙박 및 음식점업,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등에서 임시일용근로자가 증가한 영향으로 보임.
- 2023년 9월 사업체 규모별 월평균 근로시간을 보면, 중소기업은 147.0시간으로 전년동월대비 7.1시간 감소, 대규모 기업체는 152.9시간으로 전년동월대비 3.3시간 감소함.
  - － 중소기업 근로시간 감소에 비해 대규모 기업의 근로시간이 적게 감소한 것은 제조업 대규모 기업체에서 근로시간이 증가한 영향 때문임. 특히 코크스,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,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, 금속 가공제품 제조업(기계 및 가구 제외) 부문에서 전년동월대비 근로시간이 크게 증가함.

[그림 4] 사업체 규모별 상용근로자 일일 평균 근로시간(좌, 누계)과 임시일용근로자 일일 평균 근로시간(우, 누계) 추이

(단위 : 시간/일)



주 : 일일 평균 근로시간은 상용근로자, 임시일용근로자 사업체 규모별 전체 근로시간을 상용근로자, 임시일용근로자 사업체 규모별 전체 근로일수로 나눈 것임.  
 자료 : 고용노동부, 「사업체노동력조사」.

〈표 4〉 사업체 규모별 근로시간 동향(상용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의 전체 근로자 기준)

(단위: 시간, %)

		2021	2022	2022		2023	
				1~9월	9월	1~9월	9월
중소 규모	전체 근로시간	160.3( 0.1)	158.3(-1.2)	157.3(-1.1)	154.1( 3.1)	155.7(-1.0)	147.0(-4.6)
	상용 총근로시간	167.8( 0.1)	165.9(-1.1)	164.6(-1.0)	161.5( 3.6)	164.3(-0.2)	154.9(-4.1)
	상용 소정실근로시간	160.1( 0.2)	158.2(-1.2)	157.0(-1.1)	154.0( 3.8)	157.1( 0.1)	147.6(-4.2)
	상용 초과근로시간	7.7(-1.3)	7.7( 0.0)	7.6( 0.0)	7.5( 0.0)	7.2(-5.3)	7.3(-2.7)
	임시일용 근로시간	97.4( 1.4)	96.4(-1.0)	96.3(-0.7)	93.9(-1.3)	88.0(-8.6)	85.5(-8.9)
대규모	전체 근로시간	162.3(-0.3)	160.4(-1.2)	159.3(-1.5)	156.2( 4.4)	161.0( 1.1)	152.9(-2.1)
	상용 총근로시간	163.4(-0.3)	161.7(-1.0)	160.5(-1.4)	157.5( 4.6)	162.6( 1.3)	154.5(-1.9)
	상용 소정실근로시간	152.3(-0.5)	150.6(-1.1)	149.5(-1.5)	146.5( 5.0)	151.5( 1.3)	143.6(-2.0)
	상용 초과근로시간	11.1( 1.8)	11.0(-0.9)	11.0( 0.0)	11.0(-0.9)	11.1( 0.9)	10.9(-0.9)
	임시일용 근로시간	127.9( 2.2)	125.0(-2.3)	124.8(-2.6)	119.9(-0.3)	117.6(-5.8)	112.2(-6.4)

주: ( )안은 전년대비, 전년동평균대비, 전년동월대비 상승률임.  
 자료: 고용노동부, 「사업체노동력조사」.

◆ 2023년 9월 산업별 월평균 근로시간은 전기, 가스,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을 제외한 모든 산업에서 전년동월대비 감소

- 2023년 9월 근로시간이 크게 감소한 산업은 숙박 및 음식점업(-6.7%)과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(-6.3%) 등임.
  - 반면 전기, 가스,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의 근로시간이 전년동월대비 3.5% 증가함.
- 2023년 9월 월평균 근로시간이 가장 긴 산업은 전기, 가스,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(166.0시간)이고, 다음으로 제조업(161.5시간), 수도, 하수 및 폐기물 처리, 원료재생업(160.6시간) 순으로 나타난 가운데 근로시간이 가장 짧은 산업은 건설업(124.0시간)임.

〈표 5〉 산업별 근로시간 동향(상용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의 전체 근로자 기준)

(단위: 시간, %)

	2021	2022	2022		2023	
			1~9월	9월	1~9월	9월
전 산업	160.7 ( 0.1)	158.7(-1.2)	157.6(-1.2)	154.4( 3.3)	156.6(-0.6)	148.0(-4.1)
광업	179.9(-0.7)	174.8(-2.8)	173.8(-2.7)	167.4( 2.3)	167.7(-3.5)	158.7(-5.2)
제조업	173.5( 0.5)	171.1(-1.4)	169.5(-1.6)	166.0( 3.9)	170.6( 0.6)	161.5(-2.7)
전기·가스·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	161.6(-1.3)	158.6(-1.9)	157.9(-2.8)	160.4(-1.4)	161.2( 2.1)	166.0(3.5)
수도·하수·폐기물처리 및 원료재생업	176.9( 0.2)	174.4(-1.4)	173.5(-1.0)	167.9( 2.2)	170.0(-2.0)	160.6(-4.3)
건설업	135.9(-0.7)	134.3(-1.2)	133.9(-0.8)	131.1( 2.6)	128.9(-3.7)	124.0(-5.4)
도매 및 소매업	163.8( 0.0)	162.3(-0.9)	161.3(-0.9)	157.8( 3.7)	159.7(-1.0)	150.2(-4.8)
운수 및 창고업	160.2( 0.8)	160.6( 0.2)	159.4( 0.2)	157.5( 4.4)	160.8( 0.9)	153.1(-2.8)
숙박 및 음식점업	148.4(-0.9)	146.5(-1.3)	145.7(-0.8)	142.1(-0.1)	139.0(-4.6)	132.6(-6.7)
정보통신업	164.1( 0.2)	162.7(-0.9)	161.8(-0.7)	158.2( 4.8)	162.8( 0.6)	152.5(-3.6)
금융 및 보험업	161.9(-0.1)	159.8(-1.3)	158.8(-1.4)	156.2( 5.7)	160.5( 1.1)	149.2(-4.5)
부동산업	171.8(-0.8)	169.4(-1.4)	168.4(-1.4)	166.1( 2.2)	167.7(-0.4)	159.4(-4.0)
전문·과학 및 기술서비스업	161.6(-0.1)	160.3(-0.8)	159.2(-0.9)	155.6( 5.2)	159.5( 0.2)	150.1(-3.5)
사업시설관리 및 임대서비스업	162.1( 0.2)	159.8(-1.4)	158.9(-1.4)	155.3( 2.7)	158.5(-0.3)	149.6(-3.7)
교육서비스업	137.2( 0.4)	136.1(-0.8)	135.1(-0.7)	133.4( 5.0)	136.2( 0.8)	128.9(-3.4)
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업	158.3(-0.2)	155.3(-1.9)	154.3(-1.7)	151.5( 2.4)	151.1(-2.1)	142.0(-6.3)
여가 관련 서비스업	152.7( 2.0)	150.8(-1.2)	150.2(-1.1)	147.5( 1.5)	149.0(-0.8)	140.7(-4.6)
협회·단체 및 기타개인서비스업	162.4( 1.3)	160.3(-1.3)	159.2(-1.2)	154.7( 2.0)	160.6( 0.9)	150.8(-2.5)

주: 1) 임금근로자 근로시간임.

2) 2020년 1월부터 제10차 표준산업분류를 반영하여 산업별 근로시간을 공표함에 따라, 2020년 이전 자료와의 산업별 비교에 유의해야 함.

3) ( ) 안은 전년대비, 전년동평균대비, 전년동월대비 상승률임.

자료: 고용노동부, 「사업체노동력조사」.

(김복순, 동향분석실 전문위원)

● 노사관계 및 노동정책 동향

◆ 노동쟁의 조정사건과 조정성립률

- 2023년 11월 중앙노동위원회에 접수된 노동쟁의 관련 조정사건 건수는 15건
  - － 11월 노동쟁의 조정사건 접수 건수는 전년 동월 건수(13건)보다 2건 많은 수치임.
- 2023년 11월 조정성립률 30.8%
  - － 11월 조정성립률은 전년 동월 성립률 50.0%보다 19.2%p 낮은 수치임.

〈표 1〉 2022년, 2023년 11월 조정사건 접수 및 처리 내역별 현황

	접수 건수	처리 건수	조정성립			조정불성립			행정 지도	취하 철회	진행 중	조정 성립률
			소계 A	조정안 수락	합의 취하	소계 B	조정안 거부	조정 중지				
2023. 11	15	17	4	2	2	9	1	8	0	4	9	30.8%
2022. 11	13	13	6	4	2	6	1	5	1	0	7	50.0%

자료 : 중앙노동위원회, 「사건통계」.

◆ 중재사건

- 2023년 11월 중앙노동위원회에 접수된 노동쟁의 관련 중재사건 건수는 1건
  - － 11월 중재사건 접수 건수는 전년 동월 건수(1건)와 같은 수치임.
  - － 진행 중인 사건을 제외하고 중재재정, 행정지도, 취하철회 건수는 0건임.

〈표 2〉 2021년, 2023년 11월 중재사건 접수 및 처리 내역별 현황

	접수 건수	처리 건수				진행 중
		소계	중재재정	행정지도	취하철회	
2023. 11	1	0	0	0	0	1
2022. 11	1	1	1	0	0	4

자료 : 중앙노동위원회, 「사건통계」.

◆ 심판사건

- 2023년 11월 중앙노동위원회에 접수된 심판사건 건수는 189건
  - 11월 심판사건 접수 건수는 전년 동월(142건)보다 47건 많은 수치임.
  - 진행 중인 사건을 제외하고 전부 및 일부 인정 비율이 32.6%(70건), 기각·각하·취하·화해 비율이 67.4%(145건)를 차지함.

〈표 3〉 2022년, 2023년 11월 심판사건 접수 및 처리 내역별 현황

	접수 건수	처리 내역							진행 중
		계	전부 인정	일부 인정	기각	각하	취하	화해	
2023. 11	189	215	60	10	100	10	21	14	540
2022. 11	142	166	45	5	93	5	10	8	436

자료 : 중앙노동위원회, 「사건통계」.

◆ 복수노조사건

- 2023년 11월 중앙노동위원회에 접수된 복수노조사건 건수는 1건
  - 11월 복수노조사건<sup>1)</sup> 접수 건수는 전년 동월(2건)과 같은 수치임.
  - 전부 및 일부 인정 비율이 0%(0건), 기각·각하·취하·화해 비율이 0%(0건)를 차지함.

〈표 4〉 2021년, 2023년 11월 복수노조사건 접수 및 처리 내역별 현황

	접수 건수	처리 내역							진행 중
		계	전부 인정	일부 인정	기각	각하	취하	화해	
2023. 11	2	0	0	0	0	0	0	0	4
2022. 11	2	3	3	0	0	0	0	0	7

자료 : 중앙노동위원회, 「사건통계」.

1) 복수노조사건은 교섭요구, 교섭대표, 교섭단위, 공정대표 사건 등 복수노조제도와 관련된 사건 일체를 말함.

◆ 노조 회계공시 최종 참여율 91.3%

- 12월 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, 공시 대상 노조 739곳 중 675곳(91.3%)이 지난해 '노조 가계부' 격인 회계 장부를 공개했다고 밝혔다.
- 양대 노총(한국노총·민주노총) 가맹 노조는 공시 비율이 각각 94.0%, 94.3%였고, 미가맹 등 기타 노조의 공시율은 77.2%였음.
- 공시 참여 노조의 총수입은 8,424억 원으로 노조당 평균 12억 5,000억 원을 기록했고, 수입원은 조합비 7,495억 원(89%), 이자수익 등 기타사업 691억 원(8.2%), 수익사업 127억 원(1.5%) 등이었음.
- 같은 기간 노조의 지출 총액은 8,183억 원으로 평균 12억 1,000만 원이었음. 주요 지출 항목은 인건비 1,506억 원(18.4%), 상급단체 부과금 973억 원(11.9%), 조직사업비 701억 원(8.6%), 교섭·쟁의사업비 424억 원(5.2%), 업무추진비 385억 원(4.7%) 순이었고, 교육·홍보사업비는 232억 원(2.8%), 정책사업비는 221억 원(2.7%)으로 집계됐음.

◆ 민주노총 위원장에 양경수 현 위원장 당선

- 11월 28일 민주노총에 따르면, 양경수 후보는 지난 21~27일 진행된 제11기(직선 4기) 임원 선거에서 36만 3,246표를 얻어 득표율 56.61%를 기록했고, 상대인 박희은 후보는 20만 1,218표를 얻어 31.36%를 득표했다고 밝혔다.
- 양 위원장과 함께 기호 1번 조로 출마했던 공공운수노조 공항항만운송본부 소속 이태환 후보가 수석부위원장을, 고미경 전 민주노총 기획실장이 사무총장을 맡게 됐다.
- 이들의 임기는 내년 1월 1일부터 3년임.

◆ 포괄임금 도입 사업장 60% 연장근로 한도 위반

- 11월 13일 고용노동부는 '포괄임금·고정OT 오남용 신고센터'에 제보된 사업장 103곳을 기획감독한 결과를 발표했다. 103곳 중 포괄임금 계약 사업장은 87곳이었음.
- 포괄임금 계약 사업장 중 73.6%(64곳)는 직원 6,904명에 대해 야근수당 26억 3천만 원을 주지 않았음. 52개 사업장은 직원 2,151명의 연장근로 한도를 위반했음.
- 103곳 사업장 모두 연차·퇴직금 등 노동관계법령을 위반해 41억 5천만 원의 체불이 적발됐음.
- 고용노동부는 "영세사업장은 근로시간을 기록·관리하지 않는 비중이 높았다"며 "임금체불이 발생한 사업장 49곳에서 근로시간을 관리하지 않았다"고 설명하였음.

- 노동부는 중소기업에 '출퇴근 기록관리 프로그램'을 무료 배포할 예정임.

#### ◆ 영양사들 10명 중 8명 “업무 과도하게 많다”

- 11월 14일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는 지난 9월 21일부터 27일까지 전국 유·초·중·고·특수학교 영양사 1,044명을 대상으로 '학교 영양사 근무여건 실태조사'를 실시한 결과, 학교 영양사 10명 중 8명이 과도한 업무에 시달리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.
- 설문에 응한 영양사 83.3%는 '부여받는 업무량이 과도하다'고 답했고, 영양사 39.8%는 하루 8시간 이상 일한다고 응답했음. 하루 10시간 이상 일한다는 응답도 12.1%였음.
- 노동시간은 길지만 32.5%는 '시간 외 수당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'고 답했음.
- 42.2%는 '연차·병가를 자유롭게 쓰지 못했다'고 했는데, 그 이유로는 '대체인력이 없어 급식에 지장을 주기 때문(54.4%)' '급식실 전체 위생·식단·배식·안전사고 우려(36.6%)' 등이 꼽혔음.
- '업무 스트레스로 일이 힘들다'는 응답도 58.5%에 달했음. 영양사 49.0%는 '학생, 학부모, 교직원, 상사, 교육청 직원으로부터 폭언·모욕·협박·갑질 등 인권 침해를 경험했다'고 답했음.
- '어지러움·편두통·이명 등 작업환경 관련 불편함을 경험했다'는 응답은 82.4%에 달했고, '근육·인대파열·골절' 등 경험은 33.5%, '화상' 경험은 10.6%로 나타났음.
- '산재를 신청해봤다'라는 응답은 2%에 불과했는데, 그 이유로는 '판정을 못 받을 것 같아서(26.8%)', '절차를 모르거나 번거로워서(10.9%)', '관리자의 문책과 불이익이 우려돼서(8.3%)' 등이 꼽혔음.
- 학교조리사처럼 영양사도 폐암 위험을 높이는 열악한 시설에서 근무하고 있었음. 32.1%는 영양연구실에 외부 연결 창문이 없고, 47.7%는 공기청정기나 제습기를 보급받지 못했다고 답했음. 영양사가 조리실·식당에서 현장 업무를 수행하는 시간은 '2~3시간(38.9%)' '3~4시간(19.0%)' '4시간 초과(8.5%)' 등으로 나타났음.

#### ◆ 산재 피해자 4명 중 3명은 노동자 평균임금 밑돌아

- 11월 21일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에 따르면, 2022년 산재 사망자 503명(승인 기준) 중 월 평균보수 '100만 원 이하'는 12명, '100만 원 초과~200만 원 이하'는 96명, '200만 원 초과~300만 원 이하'는 165명, '300만 원 초과~400만 원 이하'는 105명으로 나타나, 400만 원 이하가 378명으로 전체의 75.1%에 달했다고 밝혔다.

- 2022년에 사망하진 않았지만 산재로 다치거나 질병에 걸린 상용노동자 6만 7,678명 중 ‘100만 원 이하’는 3,241명, ‘100만 원 초과~200만 원 이하’는 1만 6,589명, ‘200만 원 초과~300만 원 이하’는 2만 5,802명, ‘300만 원 초과~400만 원 이하’는 1만 943명이었음. 월 400만 원 이하가 5만 6,575명으로 전체의 83.6%에 달했음.
- 올해 1~8월 역시 산재로 다치거나 질병에 걸린 3만 5,876명 중 80%가 넘는 2만 9,594명 (82.5%)의 월 평균보수가 400만 원 이하였음.
- 상용노동자 1인 이상 사업체 노동자를 분석한 ‘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’를 보면 지난해 노동자 월 평균 임금은 386만 9,000원이었음.
- 상용노동자 월 평균 임금이 400만 원에 가깝다는 점을 고려하면, 산재 피해 노동자 4명 중 3명가량은 노동자 평균보다 낮은 소득을 거두는 셈임.
- 임금이 낮은 기간제 노동자, 간접고용 노동자 등 비정규직이 정규직보다 산재 위험에 더 쉽게 노출된다고 추정할 수 있음.

◆ 병원 간병노동자 “주 6일, 하루 17시간 근무”

- 11월 15일 정수창 서울시립대학교 도시보건대학원 연구원은 ‘간병노동자의 건강실태 조사결과 발표 및 노동인권 보호방안’ 토론회에서 발제를 통해 간병노동자 건강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.
- 간병노동자의 평균 일주일 근무 일수는 6.01일, 하루 평균 근무시간은 17.18시간이었음. 5개 병원 중 3곳은 24시간 종일제, 2곳은 24시간 격일제 근무 체제였음.
- 야간 평균 취침시간은 4.74시간에 그쳤고, 별도 휴게시간이 보장된다는 응답은 5.4%, 휴게 시설이 있다는 응답은 8.4%뿐이었음.
- 간병 업무 중 다치거나 감염병에 걸린 경우도 적지 않았으며, 응답자의 55%는 지난 1년간 간병 업무 중 넘어지거나 물체에 맞는 등 상해를 입은 적이 있다고 답했음.
- 다친 간병노동자의 92%는 본인 스스로 치료비를 부담했음. 감염병에 걸린 적이 있다는 응답은 36.8%였고, 이 중 56%는 지난 1년간 감염병에 걸린 적이 있다고 답했음. 이 중 87.7%는 본인 스스로 치료비를 부담했음.
- 간병노동자 대부분은 환자나 보호자로부터 폭력과 폭행, 비인격적 대우를 받았으며, 반말이나 모욕적인 말과 같은 비인격적 대우를 받았다는 응답이 70.6%였음. 가해자의 83.7%는 환자 또는 보호자였음.
- 욕설이나 위협적인 말과 같은 언어폭력을 당했다는 응답이 62.3%였고, 90.6%가 환자 또는 보호자로부터 당했음. 구타와 같은 신체폭력을 당한 경우도 32.6%였고, 환자 또는 보호자

- 가 가해자라는 응답이 94.5%였음.
- 정 연구원은 지난 6~7월 서울대병원·경북대병원·대구동산병원·충북대병원·강원대병원에서 근무하는 간병노동자 30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했음.
  - 조사에 응한 간병노동자들은 환자 한 명만 돌보는 고령 여성이었고, 유효응답자 296명 중 292명(98.6%)이 여성, 평균 연령은 65세였음.

#### ◆ 직장인 78% “근로시간 상한 주 52시간 이하여야”

- 11월 19일 직장갑질119가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엠브레인 퍼블릭에 의뢰해 지난 9월 4일~11일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천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밝힌 바에 따르면, 국민 10명 중 7명은 1주일 최대 근로시간을 현행대로 주 52시간을 유지하거나 그보다 더 줄여야 한다고 답했음.
- 1주일 최대 근로시간 상한을 새롭게 정한다면 몇 시간이 적절한지 묻은 결과 2명 중 1명(48.3%)은 48시간이 적절하다고 답했고, 현행대로 주 52시간이 적절하다는 응답은 29.6%에 그쳤음.
- 직업별, 업종별로도 크게 다르지 않았음. 생산직(79.4%), 사무직(77.2%), 서비스직(77.4%)과 제조업(78.6%), 교육서비스업(78.5%), 보건·사회복지서비스업(78%), 건설업(77.2%), 숙박·음식점업(70.6%) 등 모든 직업, 업종에서 근로시간 상한을 줄이거나 현행대로 유지해야 한다고 하였음.
- 이와 함께 직장인 73.1%는 포괄임금제 금지에 동의한다고 답했고, 포괄임금제 근절을 위해 출퇴근시간 기록의무를 법제화해야 한다는 응답이 86.7%에 달했음.

#### ◆ 직장인 10명 중 7명 “회사에 노조 필요하다”

- 11월 19일 시장조사전문기업 엠브레인트렌드모니터는 지난 6월 9일부터 13일까지 직장인 1,000명을 대상으로 ‘2023 노조 및 노사관계 관련 인식 조사’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
- 노조 필요성을 묻은 결과 직장인 66.6%는 ‘직장에 노조가 필요하다’고 답했고 ‘노조를 통해 임금 협상 문제가 개선될 것’이라는 응답(중복응답)은 53.2%, ‘업무 환경이 개선될 것’이라는 응답은 46.9%, ‘복리후생 제도가 개선될 것’이라는 응답은 46.5%로 나타났다.
- 노조에 대한 인식(중복응답)을 묻은 결과 직장인 69.4%가 ‘노조는 없는 것보다 있는 것이 낫다’고 답했고, ‘노조는 근로자 권익을 위해 꼭 필요한 단체’라는 응답이 65.0%, ‘노조는 부당대우로부터 (노동자를) 보호해줄 수 있는 단체’가 64.0%, ‘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노조

- 조직을 장려할 필요가 있다'가 56.8% 등이었음.
- 다만 '노조는 자칫 노사관계를 더 악화시킬 수 있다'는 응답도 60.4%, '노조라 하면 왠지 과격한 이미지가 떠오른다'는 응답도 59.7%로 적지 않았음.
- '현재 직장 내 노동조합이 있다'는 응답은 37.9%였음. 국가기관(38.6%), 공기업(53.6%), 대기업(38.1%) 등에서 평균보다 응답 비율이 높았고, 전문직 기업(17.0%), 중소기업(6.4%)에서는 응답 비율이 낮았음.
- 직장 내 노조가 있는 직장인 중 '직장 내 노조에 관심이 있는 편'이라는 응답은 58.8%로 나타났음.
- 노조에 가입하지 않았거나 탈퇴한 이유(중복응답)로는 '조합에 가입하더라도 큰 이점이 없다(29.4%)', '활동을 한다고 해서 노동환경이 개선되지 않을 것 같다(22.8%)' 등이 꼽혔음.

#### ◆ 국민, "1년 전보다 인권 상황 나빠졌다" 인식 증가

- 11월 22일 국가인권위원회는 올해 7~9월 국내 거주 만 18세 이상 개인 9,070가구의 가구원 1만 5,30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'2023년 인권의식 실태조사'를 발표하였음.
- 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인권 상황은 1년 전과 비교해 비슷하다는 응답이 55.2%로 가장 많았음.
- 전년 대비 '좋아지고 있다'는 응답은 1.5%포인트 감소한 반면 '나빠지고 있다'는 응답은 5.8%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음.
- 인권침해나 차별을 받는 집단으로 경제적 빈곤층(17.6%)을 가장 많이 꼽았고, 장애인(16.5%), 노인(10.8%), 학력·학벌이 낮은 사람(8.6%) 순으로 나타났음.
- 인권침해나 차별이 발생하기 쉬운 상황은 경찰·검찰 조사나 수사를 받을 때라는 응답이 19.5%로 가장 많았고, 보호시설에서 생활할 때 15.8%, 직장생활을 할 때(구직·취업 포함) 11.7% 순이었음.
- 지난 1년간 인권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 사람은 11.5%였고, 교육방식은 온라인(사이버) 교육이 62.0%로 가장 높았으며, 교육을 받은 곳은 기업·사업체가 48.8%로 가장 많았음.
- 인권교육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81.4%가 긍정적이라고 답했음. 인권교육이 시급한 주제는 장애인 인권이라는 응답이 16.8%로 가장 많았고, 집단거주시설 생활인 인권(15.6%), 혐오·차별 예방(15.4%), 노동인권(13.9%) 순이었음.

### ◆ 기혼여성 5명 중 1명 경력단절, '육아' 때문

- 11월 21일 통계청이 발표한 '2023 상반기 기혼여성 고용 현황'에 따르면, 올 4월 기준 15~54살 기혼 여성(794만 3천 명) 가운데 경력단절 여성은 17.0%로 134만 9천 명이었음.
- 지난해보다 4만 8천 명(0.2%) 감소했음. 연령별로는 40~44세(37만 명), 35~39세(33만 1천 명), 45~49세(22만 1천 명) 순이었음.
- 육아가 경력단절에 큰 영향을 미쳤음. 경력단절 여성 중 42%가 육아 때문에 일을 그만뒀다고 답했고, 결혼이 26.2%, 임신·출산이 23%, 자녀교육이 4.4%, 가족돌봄이 4.3% 순으로 뒤를 이었음. 10년 이상 경력단절된 여성이 40.0%로 가장 많았음. 5~10년 미만은 24.1%, 3~5년 미만은 13.2% 순이었음.
- 자녀가 많을수록, 자녀가 어릴수록 경력단절 여성 비율이 높아지는 특징도 나타났음. 18세 미만 자녀와 함께 사는 15~54세 기혼여성 중 경력단절 여성 비율은 24.9%였음.
- 자녀수가 3명 이상이 29.4%로 가장 많았고, 2명은 26%, 1명이 23.1% 순이었음. 자녀연령별로는 6세 이하가 35.9%, 7~12세가 21.9%, 13~17세가 11.9% 순으로 높았음.

### ◆ 서울시민 10명 중 9명 “돌봄, 공공이 맡아야”

- 12월 7일 공운수노조 서울시사회서비스원지부는 서울시민 10명 중 9명은 돌봄서비스를 공공부문이 맡는 것을 선호하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음.
- 여론조사전문기관 서던포스트는 지난달 22일부터 29일까지 서울시 만 18세 이상 성인남녀를 대상으로 서울시사회서비스원 및 사회서비스의 공공성에 관련한 조사를 실시했음.
- 그 결과 91.3%의 서울시민은 사회서비스 기관의 운영을 “공공부문이 맡아야 한다”고 답했고, 개인이나 민간법인과 같은 민간부문에서 수행해야 한다는 응답은 8.7%에 그쳤음.
- 올해 예산이 대폭 삭감된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은 6개 어린이집의 위탁운영을 포기한다고 했고, 이에 대해 시민들은 우려의 목소리를 냈음. 어린이집 운영 포기가 공공성을 약화시킬지 묻는 질문에 79.2%의 응답자가 “공감한다”고 답했음.

(조규준, 동향분석실 책임연구원)